

# 창의성 중심의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

김 창 원\*\*

## <차 례>

- I. 머리말
- II. 국어교육 목표로서의 창의성
- III. 국어교육 내용 및 방법으로서의 창의성
- IV. 창의성을 중심으로 본 교육과정의 실태와 개선 방안
- V. 맺음말

## I. 머리말

### 1. 논의의 목표와 전제

본고는 창의성 중심의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를 위하여 사전에 인정하는 전제는 아래와 같다.

#### <창의성에 관한 전제>

- 21세기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중요한 목표로 다루어야 한다.
- 창의성은 특정 상황이나 과제에 관하여 새로우면서도(novel) 적절한(appropriate) 아이디어를 생성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가리킨다(최인수, 2003).

---

\* 본고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2003.6.13)에서의 발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유익한 토론을 해 주신 박영목 교수께 감사드린다.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창의성은 인식, 해석, 추론, 비판, 적용 등 사고와 행동의 전 영역에서 발현된다.
- 창의성은 선천적인 요소가 강하기는 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후천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 우리는 직관적으로 창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으며, 창의 의 결과나 과정에도 질의 차이가 있다.
- 창의성은 ① 창의 관련 선행 경험 ② 내적 동기 중심의 창의적 성향 ③ 창의성의 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상위인지 기술 ④ 영역 구속적 지식과 일반적 지식을 포함하는 지식 기반 ⑤ 구체적인 창의적 사고 기술로 이루어진다(이영만, 2001).
- 창의성은 학습, 의사소통, 문제 해결과 같은 교육 전반에 관련되는 일반 능력이지만, 교육 실천 과정에서는 각 교과별로 특색 있게 구현된다.
- 각 교과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교과 내용과 창의성 관련 내용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에 관한 전제>

-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교육 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제시한다.
- 우리의 연구 풍토에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교육과정은 개념을 담은 문서와 그 개념이 적용된/적용될 현상의 양면을 모두 포함한다.
- 교육과정 구성이란 각 교과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교과의 전체 체제를 설계하며, 학습할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교재와 수업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 교육과정 구성은 교육에 관한 공동체의 철학과 요구를 반영하지만, 그것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각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국어교육에 관한 전제>

- 국어과는 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사고력과 문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과다(이삼형 외, 2001).
- 국어교육의 목표는 국어 능력 신장이며, 이때의 ‘국어 능력’은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 태도, 구체적인 수행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 국어교육의 본체로서의 ‘국어’는 ‘한국어’라는 언어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심리적, 사회·문화적, 예술적 현상을 가리킨다.<sup>1)</sup>
- 국어 활동은 국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며, 문화를 형성하는 의미 생산 활동이다.
- 국어 활동의 결과는 음성 텍스트와 문자 텍스트, 그리고 미디어 텍스트로 구현된다.
- 개별 언어 텍스트는 내용과 형식, 그리고 표현 면에서 고유성을 가진다.
- 언어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고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국어는 정보 처리와 저장, 발화자의 심리 표현, 정보 전달, 설득과 논증,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 대상에 대한 심미적 형상화와 반응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국어교육에서 말하는 창의성은 ‘국어적 창의성’이다.

## 2. 주요 논제

본고에서 다룰 주요 논제는 아래와 같다. 각 논제에 관한 아이디어 중에는 이미 일반화된 것도 있고, 선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더 검증이 필요한 것도 있다.

### <국어과의 목표와 관련한 논제>

- 국어 능력과 창의성은 어떤 관계인가?
- ‘국어적 창의성’이란 무엇이며, 그 개념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끌어들이 수 있나?
- 학생들의 국어적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어떠한 모델을 상정할 수 있나?

### <국어과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한 논제>

- 국어적 창의성은 국어 활동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발현되나?
- 교육과정 구성에 창의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나?
- 창의성 교육을 논의할 때에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

---

1) 이러한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통상적으로 ‘언어’라고 쓸 만한 자리에서 ‘국어’라고 쓴 경우가 많이 있다.

<국어과의 시스템과 관련한 논제>

- 7차 교육과정은 창의성은 어떻게 다루었나?
- 창의성 계발을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II. 국어교육 목표로서의 창의성

### 1. 국어 능력과 창의성

#### 1.1 국어 활동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이다

국어 활동은 국어로써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며, 문화를 형성·발전시키는 활동이다. 그 과정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내는 과정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고받는 언어가 맥락에 적절하며(적절성의 격률) 무언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생산성의 격률). 완전한 동어 반복이 아닌 이상 사람들은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새로운 정보를 부가해 간다.<sup>2)</sup>

국어 활동이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은, ‘언어의 창조성’ 개념이 이미 오래 전에 정착된 데서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발화를 이해하고, 또 유사 이래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텍스트를 만들어 낸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언어 자체의 한계 때문에 국어 활동은 필연적으로 창의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세계를 언어로써 완벽하게 전사할 수 없다면, 그러한 불완전성을 창의성으로 채워야만 비로소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기호 체계에서는 창의성이 필요 없다.

#### 1.2 국어 능력과 창의성은 같지 않다

국어를 잘 하는 사람은 국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

2) 생산성의 격률에 따르면, 동어 반복이나 맥락에서 벗어난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함으로써 무언가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이 부기된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맥락과 의도를 고려하여 그것을 추리해 내려 한다.

나 국어를 잘 하려면 순수한 국어 능력뿐 아니라 보편적인 개인의 능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계 지식(world knowledge)이라든지 사교성, 개인적 필요와 같은 요소들은 국어를 잘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어 능력은 국어를 잘 하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세계 지식 같은 것들도 국어 능력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국어 능력과 세계 지식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

창의성도 마찬가지이다. 국어를 잘 하는 사람,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창의적인 사람 - 이렇게 셋을 늘어놓고 생각하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어 능력이 뛰어나거나 국어를 잘 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창의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모두 국어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 1.3 그러므로 국어과에서의 창의성은 두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

컴퓨터는 연산 속도와 저장 능력 면에서 인간의 뇌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 하지만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 언어를 그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기계어로 번역해 줘야 한다. 인간이 “엄마, 물!”과 같은 간단한 문장을 해석할 때의 사고 작용을 보면, 창의성 없이는 국어 활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창의성은 지능과 마찬가지로 국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 창의성은,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태생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이다.

다른 한편에는 국어 능력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창의성이 있다. 위대한 학자나 예술가, 정치가 등은 분명히 창의적인 인간이다. 이들의 창의성 역시 다분히 태생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보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창의성은 ‘속성’으로서의 창의성이라기보다 ‘재능’으로서의 창의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말하자면, 국어과에서의 창의성은 언어 자체 및 국어 활동을 위한 속성으로서의 창의성(이것을 C1이라 하자)과 국어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으

로서의 창의성(이것은 C2가 된다)으로 대별할 수 있다. C1은 창의성 교육의 전제가 되고 C2는 그 목표 혹은 내용이 된다. 마치 ‘언어으로써 언어를’ 교육하듯이, 국어과에서는 ‘창의성으로써 창의성을’ 교육하며, 이 둘을 혼동하면 논의도 혼란스러워진다.

## 2. 국어적 창의성의 본질과 국어과 교육과정

### 2.1 교육의 필요 때문에 교과 창의성 개념이 필요하다

학교에 ‘창의’ 교과가 없는 이상 창의성은 일반 능력이면서도 교과를 통해 길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설사 ‘창의’ 교과를 만든다 할지라도, 모든 창의적 활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contents based activity) 교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은, 일반 창의성뿐 아니라 각 교과의 창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모든 교과는 자체의 교과 창의성을 상징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수학적 창의성, 사회적 창의성, 음악적 창의성 등이 모두 가능하다.<sup>3)</sup> 물론 국어적 창의성도 가능하며, 그 요체는 국어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 2.2 국어적 창의성은 다른 교과의 창의성과 층위가 다르다

문제는 국어 활동이 언어와 사고,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국어적 창의성은 창의적인 언어,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문화를 모두 아울러야 한다. ‘아킬레우스와 거북’의 딜레마를 생각해 보자.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국어과의 영역인가 아닌가? 위쇼스키 형제가 <매트릭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은? 영화의 시놉시스를 짜는 것은 국어 활동일 터이지만, <공각기동대>에서 <매트릭스>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제 영화와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만드는 것까지 모두 국어 활동인가? 국어 활동과 국어 활동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가?

이처럼 국어 활동의 범주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국어적 창의성의

3) 그것의 통합 여부는 또다른 문제이다. 이 부분은 통합교과론에서 다룰 수 있다.

개념 범주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국어적 창의성은 단순한 ‘창의적 표현’의 범주를 넘어서, 개념 조작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증명이나 토론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발휘된다. 즉, 국어적 창의성은 단일 교과외 창의성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국어과가 도구적 성격을 갖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2.3 국어적 창의성의 개념폭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광의의 개념은 국어적 창의성의 전체성을 보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특성을 보여주는 데는 불리하다. 특히 교과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그렇다면 국어적 창의성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제한해야 할까? 본고는 그 한계 범위를 ‘언어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 과정에 관련되는 창의성’으로 제한한다. 이때의 조건은 ‘언어 텍스트’와 ‘이해 및 표현 과정’이다. 곧, 국어적 창의성은 그 출발이나 도착 지점에 반드시 (결과로서의) 언어 텍스트가 있어야 하며, 그 발현 과정은 이해와 표현 과정이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여기서의 언어 텍스트는 음성 텍스트, 문자 텍스트, 그리고 미디어 텍스트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매트릭스> 만들기는 국어적 창의성이 발현된 예가 되지만, 그것을 원 소스 마케팅으로 세계에 보급하는 전략은 국어적 창의성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 2.4 국어적 창의성 개념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체제에 명시적으로, 내용과 방법에 암시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국어적 창의성을 ‘언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관련되는 창의성’으로 본다면, ‘창의적인 이해와 표현 능력 신장’을 국어과의 주요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비판적인 이해와 표현 능력’과 짝을 이루며, 그 바탕에 ‘사실적인 이해와 표현 능력’, ‘추론적인 이해와 표현 능력’이 자리잡는다.

국어 능력의 핵심 요소인 국어 수행 능력을 이처럼 네 층위로 구조

화하고, 그와 관련하여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매체 언어로 영역을 구분하며, 나아가 <발화자-수화자-대상-텍스트-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 특성(장르)을 안배한 뒤에 그에 관한 지식과 경험, 태도를 덧붙이면 활동 중심 국어과 교육과정의 체계를 세울 수 있다. 또한, 국어과의 전체 체제 안에서 창의성이 어디에 자리잡는지도 분명히 할 수 있다.<sup>4)</sup>

그렇다고 해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항목에 창의성을 하나하나 언급할 필요는 없다. 창의성은 국어과의 철학과 목표, 체제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용과 방법 면에서의 창의성 구현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보다 하위의 심급에서 고려할 수 있다.

### 2.5 창의성 논의는 수업에서 발산으로

이처럼 창의성 개념을 좁힌 이유는 전적으로 국어 교과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목표와 체제 차원에서만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내용과 방법 차원에서는 암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한 이유는, 창의성 논의가 수업에서 다시 발산으로 순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현과 이해’로 영역을 한정하면 분명히 국어과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한편으로 국어과가 사고와 문화를 다룬다는 점을 흐리게 하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이해/표현 과정에서의 창의성은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문화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론 부분이나 잠재적 교육과정 차원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 줘야 한다.

## 3. 국어적 창의성의 모델

### 3.1 국어적 창의성은 표현을 통해 드러나며, 그 구체적인 양상은 텍스트와 활동이다

국어과뿐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의 성과는 표현으로 드러난다. 언어든 행동이든,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그리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밖

4) 이것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세우는 작업으로 연결된다.

으로 표현되지 않는 변화는 의미 없는 변화이다. 국어과의 경우 이해 능력이 신장됐다는 것도 결국은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국어적 창의성의 표현은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는 결과로서의 표현(expression=텍스트)이고, 둘째는 과정으로서의 표현(expressing=활동)이다. 학생들에게 창의성 면에서 모범적인 텍스트를 보여주거나 창의적인 이해/표현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국어적 창의성 계발을 위해 도움이 된다.

무엇을 창의적인 텍스트라고 하는가? 그 기준은 내용과 형식, 그리고 표현 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 내용이 창의적인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견해를 본다. 형식이 창의적인 경우 우리는 새로운 양식과 기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표현이 창의적인 경우 우리는 재미와 아름다움을 느낀다. 소설에서 주제·구성·문체를 중요하게 여긴 까닭도 여기에 있고, 글쓰기에서 <내용 생성-내용 조직-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창의적인 이해/표현 활동은 이처럼 결과로서의 텍스트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이해/표현 과정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지금까지 국어과에서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대다수의 활동들은 창의적 이해/표현의 모델을 보여주고 연습시키는 것들이다.

### 3.2 세 부류의 국어적 창의성이 뛰어난 인물을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창의적인 텍스트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무엇으로 기를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답은 ‘창의적인 인간형’이다. 이상적인 언어 주체로서 창의적 인간을 상징하는 것은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 인간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추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어적 창의성이 뛰어난 인물은 세 종류이다. 첫째는 창의적인 텍스트를 만들어 낸 사람, 둘째는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람, 셋째는 국어에 대해 창의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다.

이퇴계, 최제우 같은 사상가나 정철, 김소월 같은 문인들이 창의적

언어 주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내용과 구조, 표현 면에서 최고급의 텍스트를 생산했으며, 그 텍스트의 질은 창의성으로 보장된다. 학생들은 이들과, 이들이 남겨 놓은 텍스트를 전범으로 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

한편, 시 한 편으로 상대를 제압한 을지문덕과 최치원, 언어를 지배해서 권력을 강화한 김일성과 박정희 같은 인물들은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람에 해당한다. 이들은 직접 텍스트를 생산하지 않았거나, 생산한 텍스트 자체로서 질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정치적인 맥락과 대중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텍스트를 활용함으로써 텍스트가 원래 지니고 있던 가치를 증폭하는 재주를 가졌다. 황수관을 시초로 한 스타 강사들도 이 범주에 속하는데, 학생들에게 그들의 표현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세종대왕이나 주시경 같은 인물은 창의적인 이해/표현과는 거리가 멀지만 국어 자체에 대해 창의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창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 국어적 창의성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그러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학생들을 ‘작은 시인’이나 ‘작은 웅변가’, 혹은 ‘작은 국어학자’로 만드는 것이 국어교육의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형을 상정하고 그들의 사고와 행동 특성을 분석한다면 국어적 창의성 교육의 방향과 요소에 대해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 3.3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이해/표현 과정을 보여줄 모델이 필요하다

국어적 창의성의 계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이해와 표현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해야 한다. 학생 스스로의 이해/표현 과정을 전범으로 삼기는 어려울 터, 역사적으로 공인된 창의적 인물이나 전문 교사가 이해/표현하는 과정을 모델로 하여 학생들이 응용·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용한 것은 글쓰기 과정의 기록이나 원텍스트에 대한

2차 텍스트다. 고전 문학 작품에서 여러 이본(異本)을 비교하거나 현대 문학 작품에서 퇴고 과정을 따라가는 활동은 창의적 텍스트가 생산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비평문을 읽는 것 또한 텍스트 읽기의 초점과 방법을 배우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교사의 창의적인 이해/표현 시범이다. 단순히 텍스트 의미를 재진술하거나 텍스트 분석에 머무는 것으로는 창의성을 계발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교사 자신이 창의적인 언어 주체가 되는 일이야말로 창의성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국어교육 내용 및 방법으로서의 창의성

#### 1. 국어적 창의성의 발현상

##### 1.1 창의적 사고는 국어 활동의 기본 조건이다

국어적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창의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어과에서 창의적 사고의 작용 양상은 주체와 세계(지시 대상), 언어(기호),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주체 - 세계의 관계에서 창의적 사고는 언어라는 창을 통해 대상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경험이 이 관계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새로운 사실이나 개념을 발견하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망 속에 위치시키며, 그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낸다. 창의적 사고가 없다면 새로운 단어도 문장도 없다.

한편, 주체 - 언어의 관계에서 창의적 사고는 자신의 심리를 미적으로 표현하고, 언어로부터 상황이나 인물, 정서를 상상하며, 비유나 상징과 같은 전의적(轉義的) 표현이나 운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참신한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문학 텍스트에서 이러한 창의성이 전형적으로 발휘되거나,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도 창의적 사고가 적용된 언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체 - 맥락의 관계에서 창의적 사고는 언어 맥락(화맥이나 문맥)과 상황 맥락, 그리고 문화 맥락을 활용하여 경제성의 격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생략이나 반어와 같은 수사법, 속담이나 일화, 끌리세(cliche) 등의 관용적인 표현이 효과를 얻으려면 주체를 맥락에 연결시켜 주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처럼 텍스트 이해와 표현 과정에서 맥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위인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은 의식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주체 - 주체의 관계의 관계에서 또한 창의적 사고가 작용한다. 독자 분석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자아 성찰적인 표현에서도 창의적 사고는 활발하게 작용한다. 주체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국어 활동의 창의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1.2 창의적인 의사소통은 국어 활동의 본체다

창의적인 의사소통은 국어적 창의성이 중점적으로 발현되는 활동 영역이다. 그것은 정보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이해와 표현으로, 매체 특성에 따라 음성 소통과 문자 소통, 미디어 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기본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여 다양한 복합적 소통을 만들어 낸다. 이들의 관계망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이해	표현	상호작용	
음성	듣기	말하기	대화	복 합 소 통
문자	읽기	쓰기	교신	
미디어	보기	만들기 (홈페이지, Presentation 등)	양방향 소통 (채팅, VOD 등)	
복            합            소            통				

무엇이 창의적 이해인가? 추론과 상상을 통해 텍스트가 직접 표상하는 정보 이상의 정보를 구성해 내는 것이 창의적 이해이다. 그렇다면 창의적 표현은? 아직까지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텍스트를 구성해 내는 것이 창의적 표현이다. 창의적 이해와 창의적 표현이 생산성의 격차를 지켜 가며 효과적으로 교대할 때 창의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안녕하세요?”라는 물음에 “날씨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조차 가장 단순한 형태의 창의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 1.3 창의적인 문화 형성은 국어 활동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우리는 국어 활동을 통해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창의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언어를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동적이고 개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활동이거니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구심력(규범성)과 원심력(창조성)을 조절하는 것도 창의적인 활동이다.

국어 문화는 여러 수준의 방언(지역, 세대, 성(性), 직업 등)이나 각 공동체마다 독특하게 형성되는 담론과 같은 공시적 문화와,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 통시적 문화로 나눌 수 있다. 또는 일상의 생활 문화와 예술 문화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창의성은 이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며, 특히 문학으로 대표되는 예술 문화는 국어적인 창의성이 일정한 양식으로 정착된 보기라 할 수 있다.

## 2. 창의성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방법

### 2.1 텍스트 중심 접근

국어적 창의성은 텍스트로 구체화되므로, 텍스트 중심으로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정석이다. 1차 교육과정 이래 텍스트 유형(=문종/장르/담화 형식)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해 온 것도 그 때문이다.

텍스트 유형은 국어 활동의 목적과 관련되므로, 정보 처리와 저장,

발화자의 심리 표현, 정보 전달, 설득과 논증,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 대상에 대한 심미적 형상화와 반응 등과 같은 국어의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들을 고려한 장르의 창의성을 탐색한다면 교육과정 내용이 한결 풍부해질 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창의성을 내용과 구조, 표현 면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것 중심으로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것 역시 정석이다. 내용의 창의성이 창의적 사고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면 구조와 표현의 창의성은 창의적 의사소통과 연관성이 높다(창의적 문화는 이들 모두의 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논증 텍스트에서의 창의성과 시 텍스트에서의 창의성을 비교해 보자. 전자는 창의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고 후자는 창의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논증 텍스트의 경우 근거의 사실성과 추론의 논리성은 일견 창의성과 거리가 먼 듯이 보이지만, 문제 의식과 주장이 창의적이지 않은 한 그러한 사실성과 논리성은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반대로, 시 텍스트의 경우 논리성과 거리가 먼 듯해도 텍스트 해석이 일단 전언적 의미의 해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의성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곧, 텍스트 유형에 따라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수렴성과, 텍스트마다 창의성의 발현 양상이 다르다는 발산성 사이의 균형 위에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 2.2 활동 중심 접근

활동 중심 교육관은 텍스트 중심 교육관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교육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과정의 창의성이 결과의 창의성을 보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창의적인 활동이 반드시 창의적인 텍스트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결과물이 확실한 예술 활동의 경우(음악이나 미술처럼), 창의적인 활동보다는 반복 연습과 시행 착오를 거쳐 창의적인 텍스트를 낳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표현 과정에서의 창의적 활동은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창의적 활동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교육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인

이며, 학생들은 잘 조직된 창의 경험을 거쳐 점차 조직되지 않은(그러나 더 자유로운) 활동으로 나아가면서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서 창의적 활동을 고려하려면 창의적 활동을 음소/자소에서 텍스트/화용에 이르는 언어 층위별로 분류하거나 문제 인식에서 대안 제시에 이르는 사고 과정별로 분류하여 조직해야 한다. 어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나 내용 선정을 위한 여러 전략들이 그 예들이다.

또한 국어적 창의성의 표현을 위해서는 <내용 생성-조직-표현 및 전달>과 같은 단계적 모형보다는, <발견과 생성-확장과 심화-대안 탐색 및 평가-적용 및 응용>과 같은 창의성 중심의 활동 초점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발견과 생성을 위한 활동 전략, 확장과 심화를 위한 활동 전략... 과 같은 식으로 상세화하면 된다.

### 2.3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술(記述)

‘창의성 중심’이라 하여 모든 교육과정 항목에 ‘창의’를 넣는 것만큼 우매한 일도 없다. 교육과정 목표와 체제에 창의성을 명시적으로 기술 하더라도, 실제 내용과 방법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내용과 방법 항목의 기술에 창의성을 암시적으로 포함시킬 방법이 있어야 한다.

목표와 체제에 창의성을 명시하는 일은 선언적 기술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성은 중요한 교육 중점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암시적으로 창의성을 보장할 것인가?

첫째, 교육과정 기술에서 사고와 언어, 문화의 관계를 긴밀하게 고려 하면 된다. 특히 사고-언어의 관계는 본질상 창의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어 활동의 다양한 국면에서 사고 요소를 필수적으로 언급하면 자연스럽게 창의 관련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언어 이해의 세 국면인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각각의 이해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둘째, 텍스트 유형에 따른 특성과 그 변용 사례를 자료로 제시해 주면 된다. 각각의 텍스트 유형은 일종의 문화성을 반영하며 정형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자료는 거의 없다. 모든 텍스트는 많은 적든 창의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이 정형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창의성의 실제 발현상을 살필 수 있다. 텍스트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창의성을 기준을 본 수렴과 발산이라는 관점에서 자료를 선정, 조직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셋째, 국어 활동의 구체적인 국면을 창의성 중심으로 예시하면 된다. 텍스트 이해든 표현이든, 국어 활동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은 창의성의 발현으로 재진술할 수 있다. 아이디어 생성 과정만 하더라도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PMI 등 다양한 기법을 쓰는데, 이들은 모두 창의적 사고 기법에서 끌어온 것들이다. 따라서 <읽기 전 - 읽는 중 - 읽은 후>라든지 <내용 이해 - 구조와 표현 이해 - 맥락 이해>와 같이 국어 활동을 분절하고 각각의 활동 방향을 암시함으로써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담아 낼 수 있다.

결국, 교육과정 구성에서 창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내용 항목 중심의 교육과정 기술 방식을 <내용 - 이론 - 텍스트 - 과정(활동) - 맥락>과 같은 복합적인 기술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교육과정 문서가 매우 복잡해지겠지만, 대신 해설서가 필요 없어진다.

### 3. 창의성 논의에서의 유의점

#### 3.1 창의성을 보장하는 교재는 없다

열린 교재와 닫힌 교재를 구별하고, 열린 교재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 크게 이의를 달 생각이 없다. 그러나 국어과에서 열린 교재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견해가 없다. 단순히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발산적 질문을 많이 주며,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열린 교재라고 말한다면 지나치게 소박한 견해다.

한편, 정부가 만들거나 검정한 교조적(?)인 교재와 교사 단체(전국국어교사모임이나 지역별 교과모임 등)가 만든 ‘살아 있는’ 교재로 구분하는 것도 단순한 접근이다. 교사 단체가 개발한 교재는 ‘학생 중심/활동 중심’의 강박 관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재미있게 수업은 했는데 뭘 배웠는지는 알지 못하는’ 교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라는 제도 교육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창의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교재나 저해하는 교재는 없다. 있다면 교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그렇지 못한 수업이 있을 뿐이다. 다만, 창의적인 수업으로 이끌기에 더 적절한 교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툭툭 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해서 창의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창의적인 수업이 가장 잘 되는 교재란, 손오공이 서역에서 가져왔던 무문경(無文經)처럼, 완전히 교사에게 맡겨 놓고 아무 것도 지시하지 않는 교재가 아니겠는가(물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할 것이다).

### 3.2 문제는 교육의 운용 시스템이다

결국, 교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업이다. 수업에서 창의성을 발현하려면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 창의를 자극하는 과제와 환경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창의 기술을 설명·시범 보여야 한다.

이때 텍스트만을 고려하면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줄게 된다. 창의적 사고와 문화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주체와 텍스트, 맥락을 적절히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수업 모형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발산적인 질문과 활동을 충분히 실어야 한다. 수업에 관한 아이디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교육과정의 의의는 반감된다.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아이디어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단위 학교, 학교 경영진과 교

사,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막고 창의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시스템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은 시스템에 대한 의식조차 없다. 교육은—더 좁게 수업이라 해도 좋다—정책 수립자, 내용 제공자, 교육과정과 교재 편찬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시·공간의 물적 토대 위에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이러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작용 방식을 설명하며, 시스템이 창의성 계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리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 구성에서 모든 것을 학습자 중심으로 기술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교육의 존재 근거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시스템 하에서는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이다(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교재를 제공하고 교사는 어떻게 움직이며 수업 점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매뉴얼 수준까지 구체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교육과정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 3.3 국어과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흔히 내적 변인(인지 능력, 지식 기반, 경험, 창의 성향 등)과 외적 변인(환경, 교육 등)을 든다. 이들은 국어 능력이나 국어교육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또한 창의성 계발은 각 교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적용은 교과를 넘어서서 이루어진다. 단적으로, 국어과는 국어적 창의성을 계발하지만 학생들은 국어적 창의성이 아니라 그냥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망라주의이다. 백화점식 나열이라고도 하고, 섭렵에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라도 빠뜨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각 교과마다 ‘우리 교과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교과 최우선주의도 있는데, 이것 역시 망라주의와 그리 멀지 않다. 뭐든 하나를 하면, 그것

으로 끝장을 보려고 한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어적 창의성’이 아니라 ‘창의성’이고, 국어과가 창의성 계발에 관해 모든 짐을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으며, ‘지금 여기’에서 창의성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키지 않아도 ‘언젠가 어디선가’ 계발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어과 내에서 시스템이 중요하듯이 교육 전체에서도 시스템이 중요하다. 국어과와 국어적 창의성은 그러한 시스템의 한 요소이다.

#### IV. 창의성을 중심으로 본 교육과정의 실태와 개선 방안

##### 1. 7차 교육과정과 창의성

###### 1.1 교육과정 총론에서 창의성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7차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교육과정의 성격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 과정
-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 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

여기서 ‘창의성’이라는 용어는 ‘나’항에 나와 있지만, ‘가’, ‘다’ 항목도 결코 창의성과 무관하지 않다. 곧,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이미 창의성을 주요 핵심 개념으로 다룬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이 다섯 가지 인간상을 한데 묶어서 ‘창의적인 인간’으로 말한다고 해도 크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7차 교육과정을 창의성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연히 학교 급별 목표에서도 창의성이 핵심 키워드로 나오는데, 다섯 가지 목표 중 창의성을 직접 언급한 둘째 항목만 보도록 하자.

- 초등학교 교육 목표 : 나. 일상 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중학교 교육 목표 :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고등학교 교육 목표 :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여기서 비로소 창의성을 문제 해결 및 표현력과 관련지어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표현 - 이것이 7차 교육과정에서 표나게 내세운 창의성 관련 목표이다.

## 1.2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렇다면, 국어과에서는 창의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1. 성격’을 살펴보자.

국어과에서는 국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목적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하 후략)

여기에서는 국어에 관해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표현을 국어 활동 영역의 최종 도달점으로 보고, 그를 위해 각각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표현을 최초 출발점으로 삼은 관점이다. 나아가, ‘성격’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보인다.

국어과 학습은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해석적이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준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이 확대되도록 하는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 국어과에서 강조하는 사고가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로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편찬자와 교사에게 창의적 표현과 창의적 사고를 연결할 책임이 떨어진 셈이다. 이러한 국어과의 성격은 ‘목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여기서는 앞서 총론에서 창의성을 전면적, 잠재적으로 다룬 것과 달

리 표현 영역에서 한정적,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는 학교 교육 전반이 아니라 국어과라는 특정 교과에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더 상세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7차 국어과가 창의성을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과 같은 거시 영역이 아니라 표현의 영역으로 좁혀서 바라보고 있다는 혐의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는 성격과 목표뿐 아니라 ‘내용’과 ‘평가’ 항목 진술에서도 마찬가지다.<sup>5)</sup>

<내용>

- 3학년 쓰기 (3) 내용을 창의적으로 생성하여 글을 쓴다.
- 6학년 문학 (4) 작품에 창의적으로 반응한다.
- 10학년 쓰기 (6) 창의적으로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평가>

가. 교수·학습 계획

- (라) 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언어 자료(음성 언어, 문자 언어, 시각 언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과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물론, 쓰기 영역에서 창의적인 글쓰기, 문학 영역에서 창의적인 반응 밖에 창의성을 고려할 여지가 없지는 않았을 터, 실제로 많은 내용 항목을 창의성과 관련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 체계에서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용 체계 중 국어 활동 영역의 원리는 이해 영역의 경우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으로, 표현 영역의 경우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전달>로 되어, 이해 영역은 사고력의 하위 범주로, 표현 영역은 텍스트 생산의 과정 범주로 조직화했음을 알 수 있다. 굳이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의 범주화 원리를 다르게 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이 분리되

---

5) 앞에서 교과와 목표와 체제에서는 명시적으로, 내용과 방법에서는 암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방편으로 살폈을 뿐이다.

고 이해와 표현의 원리가 서로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내용 체계에서 문학 영역은 문학의 본질상 창의성이 주요 요소로 전 하위 범주에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어 지식 영역은 전적으로 국어학의 학문 체계와 국어 어문 규정의 체계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창의성이 발현된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국어 지식 영역과 창의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식 생산과 창의성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 2. 창의성 중심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 2.1 국어교육의 방향 차원에서

우선, 국어적 창의성이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의사소통, 그리고 창의적 문화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시작해 보자. 그런데 창의적 사고는 그 자체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통합적으로 발현된다(여기에 감상적 사고를 덧붙일 수도 있다). 창의적 의사소통과 문화 역시 여러 국면에서 창의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창의성 ‘만들’ 위한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 ‘과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국어과)교육에서 창의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문제 해결이나 표현을 위해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분히 기능적인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다. 창의성은 생활이나 직업의 소양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고 학습이나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또는 즐거움이나 정서 이완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창의성은 학생들의 삶 전반에 걸쳐 발현되며, 창의성이 영향을 끼치는 영역은 삶의 구석구석에 편재(遍在)한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은 학생들의 자아를 고양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어과에서 창의성이 텍스트와 활동으로 표현된다면, 창의적인 텍스트/활동이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자. 시 텍스트는 일상 텍스트에

비해 창의적이겠지만, 이상이나 김수영, 김춘수 등의 시처럼(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난해시를 썼는데) ‘지나치게’ 창의적이어서 소통 가능성을 스스로 줄인 텍스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활동 역시 마찬가지여서, 너무나 창의적이어서 기행(奇行)이라고나 해야 할 활동을 받아들일 것인가? - 이 부분에서, 창의성의 외연을 제한할 필요성이 생긴다. 개인 영역이나 특수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공적인 교육 상황에서 창의성의 범주는 어느 정도 제한폭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용/적용 가능성이 창의성 판단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다.

## 2.2 교육과정 개편의 차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을 창의성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세 가지 작업을 해야 한다.

첫째는 국어과 목표와 내용 체계의 재구성이다. 6차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언어-문학>의 국어 영역별로 목표를 기술하고 7차 교육과정은 <지식-수행 기능-태도>의 행동 영역별로 기술했다. 이러한 기술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것이 낫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은 다른 어느 방식을 제시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창의성을 중심으로 둔다면 국어 능력의 구조와 국어 활동의 양상을 고려하여 <사고 목표-의사소통 목표-국어 문화 목표>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식, 수행 능력, 경험, 태도는 그 아래 다시 안배하면 될 터이다. 그러한 하위 범주에는 이것 외에도 매체 특성(음성·문자·미디어), 텍스트 유형(언어의 기능에 따른), 이해/표현 활동의 과정과 층위 등이 있지만, 그것들은 목표보다는 내용 체계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검토하는 데에 이처럼 많은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국어과의 내용 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7차 교육과정은 네 개의 틀 - ① 듣기·말하기·읽기·쓰기라는 국어 활동의 영역, ② 본질·원리·태도라는 행동 특성, ③ 정보·설득·친교·표현이라는 텍스트 유형(혹은 기능), 그리고 ④ 각 활동 영

역별 과정이나 층위로 내용 체계를 구성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류 기준이어서, 굳이 이것을 더 상세화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중에 목표로 옮길 수 있는 것(= 행동 특성)은 목표로 옮기고, 내용 체계에는 순수하게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만 남겨놓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은 결국 내용과 구조, 표현에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둘째는 내용과 방법 항목의 재구성이다. 현재는 내용은 내용대로 기술하고 방법(교수 학습 및 평가)은 방법대로 기술하다 보니, 내용과 방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특히 방법 부분이 추상적인 기술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내용과 방법을 통합하여(자료와 상황, 요구 수준도 포함하여) 기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용 항목을 앞서 본 목표 및 내용 체계와 관련지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다시 짜야 한다.

셋째는 이들 작업의 기초가 될 국어적 창의성의 외연과 내포를 정하고 하위 범주를 분류하는 일이다. 국어적 창의성을 이해와 표현으로 대별하는 것은 너무 큰 분류이고, <발견과 생성-확장과 심화-대안 탐색 및 평가-적용 및 응용>이라는 과정/층위로 분류하는 것은 아직 임의적이다. 문학 텍스트에서의 창의성과 다른 영역에서의 창의성도 구별해 줄 필요가 있고, 인지와 정의에서의 창의성도 마찬가지다. 곧, 창의성을 단지 선언적인 수준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과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자 한다면, 국어적 창의성의 개념을 분석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3 교육과정 실천의 차원에서

대체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국가 수준 문서로서 이해한다. 조금 더 나가면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데서 멈춘다. 하지만 교육과정 실천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과정에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창의성과 수업을 연결한 논의들은 대체로 재미있는 수업 아이디어 차원에서 창의 기법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어과의

경우에도 수많은 창의 기법을 설명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학습지를 만들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반응을 소개하는 데서 그친 보고서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든 수업 보조 자료라면 몰라도, 교육과정 구성과 관련하여 창의성을 논의하면서 그런 수준에 멈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창의성 중심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자와 교사 자신이 창의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창의성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업은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태생적으로 창의성은 일반 능력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장면이 가면 교과성보다는 통합성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적 창의성이 창의성 일반으로 환원/투사될 수 있는 기제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성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항목에서는 암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나올 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그치면 ‘창의적이지 않은’ 교사는 결코 진술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읽어 내지 못한다(혹은 읽는다). 따라서 몇몇 항목을 뽑아서 시범적인 교수·학습 지도(ICM, Instructional Curriculum Map)를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의 취지는 교육과정 개선 작업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사회 전체의 창의 문화를 고양하기 위해 국어과에서 고려할 점을 짚어 보자는 데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고, 공동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편이나 수업 개선의 구체적인 국면을 짚지는 못하더라도 국어교육과 창의성의 관련에 대하여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Torrance가 얘기했듯이, 진정으로 창의적인 것은 가르칠 수 없다. 그

렇다고 해서 창의성이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창의성 자체는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창발적인 결과물(emergent product)인 것이다. 특히 종합적 통찰력으로서의 창의성은 21세기에 더욱 필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국어적 창의성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통찰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지 과학, 유전자 공학, 사회 생물학 등의 발달과 함께 과거에 후천적 요인이 강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행동 특성들이 선천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게놈 프로젝트는 어쩌면 구조기능론에 입각한 근대 교육의 종언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유전자의 지배역(支配域)을 넘어서는 인간 발달의 기능역(可能域)을 가능한 한 넓히는 것이 교육자의 소명일 것이다. ‘창의성’은 아마 그 어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 <참고 문헌>

- 김광해 외(1998), “초등용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98-1,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대행(1998), “문학과 사고력”, 『뚝어교육과 사고력 - 통합적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영채(1999), 『황의적 문제 해결 : 창의력의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 김정휘(1997), “개성 신장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 창의적인 사회(Creative Society)와 창의적인 심성(Creative Minds)을 지향하며”, 『교육과정연구』 15-1.
- 김중신(1999),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4.
- 김창원(1992), “문학교육과정 설계의 절차와 원리 - 목표 및 내용의 조직”, 『뚝어교육』 77-78.
- 김창원(1994), “문학교육과정 설계의 절차와 원리(II) - 방법 및 외적 변인의 명료화”, 『뚝어교육』 83-84.

- 김창원(1996), “문학교육과정의 구성 원리”, 『문학영역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화 연구』, 학술발표회 자료집 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창원 외(1999), “문학교육과 상상력”, 『특서연구』 5.
- 문정화·하종덕(1999), 『흐트 하나의 교육 창의성』, 학지사.
- 박문태(1999), 『창의성 교육, 그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박병기(1998), 『창의성 교육의 기반』, 교육과학사.
- 박영목(2003),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 『창의성과 학교 교육』,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 박인기(1996),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 서울대출판부.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편(1993), 『사고력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성일제 외(1989), 『사고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
- 신헌재(1991),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국어과 교육”, 『뚝어교육』 73·74.
- 우한용 외(1997),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 윤종건(1994), 『창의력』, 정민사.
- 이경섭(1999), 『효율과정 쟁점 연구』, 교육과학사.
- 이도영(1998), “언어사용 영역의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 이삼형 외(2001), 『뚝어교육학』, 소명.
- 이성영(1995), 『뚝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 출판부.
- 이영만(2001), “교과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의 접근 방안 탐색”, 『초등교육 연구』 14/2.
- 이인제 외(1997), 『체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97-23, 한국교육개발원.
- 이인제 외(1997), 『창의력 신장을 돕는 중학교 국어과 학습 평가 방법 연구』, 연구보고 CR 97-10, 한국교육개발원.
- 임선하(1993), 『창의성에의 초대』, 교보문고.
- 임선하(2000), 『창의성의 틀 - DESK 모형 접근』, 현대창의성연구소.
- 임철성(1989), “국어과의 창의성 계발”, 『뚝어교육』 89.
- 전경원 편역(1998), 『효사를 위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창지사.
- 전경원(2000), 『창의학』, 학문사.

- 정종진 편역(1993), 『치력의 심리 : 지능, 창의성, 특수성』, 그루.
- 최인수(1998),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한국심리학회지』 17.
- 최인수(2003), “창의성 체계 모델의 교육에의 적용”, 『창의성과 학교 교육』,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 최현섭 외(2002), 『특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 한국교육개발원(1987~1991),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1~4.
- 홍순정(1999), 『치능과 창의성』, 양서원.
- Cropley, A. J./김선 역(1995), 『교육과 창의성』, 집문당.
- Feldhusen & Treffinger/전경원 역(1998), 『효사를 위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창지사.
- Torrance, E./김재은·주희정 역(1989), 『창조성을 흔들어 깨워라』, 토탈디자인.

<초록>

## 창의성 중심의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

김 창 원

본고는 창의성 중심의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 필요한 전제 조건들을 탐색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여덟 가지 논제를 설정하고 그에 관한 연구자의 견해를 밝혔다.

1. 국어 능력과 창의성은 어떤 관계인가?
2. ‘국어적 창의성’이란 무엇이며, 그 개념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끌어 들일 수 있나?
3. 학생들의 국어적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어떠한 모델을 상정할 수 있나?
4. 국어적 창의성은 국어 활동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발현되나?
5. 교육과정 구성에 창의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나?
6. 창의성 교육을 논의할 때에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
7. 7차 교육과정은 창의성은 어떻게 다루었나?
8. 창의성 계발을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연구 결과 국어적 창의성과 창의성 중심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념을 재점검하고, 국어교육에서 창의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한 시사 를 얻을 수 있었다. 본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원론 수준에서 논의되던 창의성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국어 능력, 창의성,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적 창의성, 교육 과정 구성

<Abstract>

## **Creativity Oriented Curriculum Development with Korean Language Teaching**

**Kim, Chang-won**

I discussed on directions and criteria of creativity oriented curriculum development with Korean language teaching(KLT). For these purpose, I have suggested 8 topics relating to KLT, creativity, and curriculum development. i.e.:

1.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anguage ability and mental creativity.
2. Concept of linguistic creativity within Korean language use.
3. Ideal models of linguistic creativity in KLT.
4. Operating mechanism of linguistic creativity in KLT.
5. Methods of creativity oriented curriculum development with KLT.
6. Discussive topics of creativity education and KLT.
7. Relationship between the 7th curriculum of KLT and creativity education.
8. Directions and criteria of creativity oriented curriculum development with KLT.

**【key words】** Korean Language Ability,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Teaching, Linguistic Creativity within Korean, Curriculum Development